

전남도, 농촌 인력난 숨통 트인다

18개 시군에 외국인근로자 1천763명 확정 정부에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 강력 건의

전남도는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18개 시군 1천76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개 시군에 1만 7천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이 10.3%를 차지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5배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

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기업도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 봄철 농번기 동안 국내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체류 48명,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기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지원까지 주도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일선 시군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개선된

제도가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효과를 냈지만,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법무부에 국내외 지자체 간 인력도입 업무협약(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기초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제도도입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불법이탈 방지장치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인력배정배제 등 과도한 제재보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가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의 재배 품목별 인력수요를 조사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들불열사기념사업회 기록물 기증 협약...소장·관리 149건 기증받아

윤상원 열사 수첩·박관현 열사 육필 메모 등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은 9일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들불열사기념사업회와 기록물 기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양 기관 간 학술·연구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기록관은 들불열사기념사업회에서 소장·관리하는 기록물 중 총 149건을 기증받았다.

대상 기록물은 5·18민주화운동과 5·18 참여자, 들불야학 관련 내용으로 도서간행물 6건, 문서자료 133건, 박물자료 4건, 사진자료 6건(710컷) 등이다.

이번 기증기록물 중에는 윤상원 열사 수첩,

박관현 열사 육필 메모, 박용준 열사 일기 등 중요기록물도 다수 포함됐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04년 윤상원 열사 생가 화재로 많은 기록물이 사라졌다.

기록관은 오는 10일부터 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복본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이들 기록물과 관련한 전시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박관현 열사 서거 40주기에 협약을 통해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시, 사회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광주시는 사회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매년 저소득층·독거노인 가구·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과 민간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유해인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벽지 교체 등 실내 환경을 친환경 자재로 개선하는 복지사업이다. 2009년부터 환경부·한국환경기술원·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자치구를 통한 수요조사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29가구와 독거노인 가구 등 민간계층 24곳을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광주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부터 참여 신청자의 가옥과 시설에 대해 7개 실내 환경오염물질 항목(곰팡이·집먼지 진드기·미세먼지 등)을 측정·진단하는 한편 개선 방안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병원 등과 연계해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소아·청소년과 어르신 의 진료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10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실내환경 측정결과 등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 사회공헌 기업에서 제공한 벽지·바닥재·페인트 등의 자재를 활용해 실내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전남테크노파크가 보성 소재 스마트기자재산업센터에 구축된 '1만급 프레스 장비'를 순천 소재 신금속 산업센터 마그네슘상용화지원동으로 상공 이설했다. (사진=전남TP 제공)

전남TP, 핵심장비 이설 '마그네슘 제품' 상용화 지원 1만급 유압프레스 장비 이설 용역 1년 추진...성공 이설

전남지역 기술혁신과 첨단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1만에 달하는 핵심장비 성공 이설을 통해 마그네슘 제품 상용화를 본격 지원하게 됐다.

전남TP는 보성 소재 스마트기자재산업센터에 구축된 '1만급 프레스 장비'를 순천 소재 신금속산업센터 마그네슘상용화지원동으로 이설한 후 정상가동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장비는 마그네슘 휠 형태조 등 경량소재의 열간 단조에 쓰인다. 프레임과 메인실린더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형경량화 구현을 위해 와이어 와인딩(Wire Winding) 타입으로

제작됐다.

2011년 당시 보성 수송기기부품생산동(현 스마트기자재산업센터)에 구축해 가동해오다 최근 순천으로 이설했다.

장비 이설은 순천 마그네슘상용화지원동에 구축 중인 마그네슘 소재 일괄생산 체제라인에 없어서 안될 주요 장비이기 때문이다.

전남TP는 1만에 달하는 유압프레스 장비 이설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2개월간 구조설계부터 피트공사, 전기공사, 이설 용역을 진행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지방비 지원한도 상향...전 품목 1000만원까지 지원

전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여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어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원에 불과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돼 전남도가 2배로 상향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은

등 특약 추가 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는 보험료 납부액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을 꺼리는 어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000만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50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16억원을 증액한 총 64억원을 확보했다.

보험료 추가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느단 352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망 박노을 (620126-1628516)
최후주소 : 광양시 광양읍 덕산4길 35-4

위 망 박노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8월 10일

공고인 : 박분임
주소 : 광양시 옥곡면 신금1길 62-8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8월 4일
공고기간 : 2022. 8. 10 ~ 2022. 10. 1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0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보험료	비율
5분위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8,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연봉연구소
Yoon Research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력으로 기업을 근로자 모두 행복해준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